

문화수도 '문화 CEO'는 누구?

광주비엔날레재단, 적임자 물색 ... 영입 작업 본격화



정준모 감독

광주비엔날레재단(이하 재단)의 문화CEO 영입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광태 광주시장이 후보군을 압축하는 이사회를 여는 등 문화CEO 영입에 눈을 돌린 것이다. 지난 5개월 동안 박 시장이 유니버시아드 유치에 올인한 바람에 재단의 최대 현안이었던 문화CEO 영입작업은 사실상 거의 율스뿔된 상태였다.

문화CEO는 지난해 '신장사 사건'으로 권위가 실추된 재단이 광주비엔날레의 개혁 일환으로 내놓은 핵심 카드로,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과 발전방안 수립, 예술총감독 선정 작업 등을 맡게 된다. 재단은 9일 박광태 광주시장과 오쿠이 엔워저 (Okui Enwezor) 예술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비엔날레 전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화CEO 후보 선정과 영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이사들 사이에서는 정준모(고양문화재단 전시감독), 김용대(전 부산시립미술관장), 김창일



김용대 관장

(천안아라리오 그룹 대표), 이원일(뉴욕 현대미술관 객원 큐레이터)씨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이름값'에 걸맞지 않은 낮은 대우와 재단이 적극적으로 '리브롤'을 하지 않아 적임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누가 거론되나=정준모씨는

재단 운영·총감독 선임 등 막강 파워

정준모·김용대·김창일·이원일씨 물망

제1회 때 전시부장을 맡아 광주비엔날레를 태동시키는 데 참여했다. 국내외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인사들과의 인맥이 넓어 재단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이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재직시 김운수 현대미술관장에 의해 해임된 사실이 현 시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미지수다. 올 2월 박수근의 작품 '빨래터'의 위작 여부를 감정하면서 유명세를 탄 김용대씨도 국내 미술계



김창일 대표

의 대표적인 마당발이다. 반면 2006년 부산시립미술관 관장 재직시 폭력적인 일 처리 등으로 학예사, 지역 미술인과 마찰을 빚은 점 등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예술계 영향력 있는 인사 100인'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던 아라리오그룹 김창일 대



이원일 큐레이터

근무를 자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유능한 인물영입 적극 나서야=재단은 문화와 경영마인드를 갖춘 인물들을 CEO로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탁월한 외국어 능력과 해외 인맥, 국제적인 미술감각 그리고 경영능력을 겸비한 민간인 출신 전문가를 CEO로 선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조건을 충족할 만한 인사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미술 전문가 영입에 나선 서울시립미술관의 학예부장 자리도 3년째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공석이다. 이 때문에 비엔날레 재단 안팎에서는 역량있는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조건 제시와 삼고초려의 마음으로 끈질기게 구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단의 한 이사는 "후보들 중에는 과거 비엔날레에서 활동했던 인원이 있는데도 선뜻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마땅한 사람이 나오면 재단의 고위층에서 발벗고 나서 후보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는 중국, 뉴욕 등지에 걸러리를 갖고 있는 미술계의 '큰손'이다. 예술적인 안목과 경영 마인드를 갖추고, 지역 작가들의 해외 진출의 산과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지만 본인이 고사하고 있다. 현대미술의 핵심인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MoMA)과 병설 뉴욕 현대미술센터(P.S.1/MoMA)에서 객원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일씨는 외국어가 탁월하고, 아시아지역 미술의 전문가이다. 하지만 해외 활동이 잦아 지방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노트르담 드 파리' 광주 공연

12일~15일 문예회관

화려한 불거리를 기대한 이들에게 '노트르담 드 파리'(이하 노트르담)의 무대는 다소 썰렁한 듯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극이 시작된 후 첫 노래 '대성당의 시대'가 울려 퍼지고, 적재 적소에 배치된 조명 아래 무용수들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객들은 감동의 세계로 빨려든다.

2005년 첫선을 보인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은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익숙했던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전해왔다. 출중했던 오리지널의 기세에 눌려 고전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한국어 버전 역시 대박을 터뜨렸고 드디어 광주에 도착했다. 12일~15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노트르담'은 집시여인 에스메랄다와 그녀를 사랑하는 파지모도, 프롤로 신부, 근위대장 페뷔우스가 서로 얽히면서 사랑, 배신, 증오, 질투 등 다양한 인간사를 이야기한다.

노래하는 연기자와 무용수가 완전히 분리돼 있는 '노트르담'을 보고 나면 '세 가지 공연'을 보고 난 느낌이 든다.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정통적인



뮤지컬 한편, 가수들의 뛰어난 노래를 듣는 콘서트 한편, 그리고 온몸을 악기처럼 연주하는 무용 공연 한편.

가사 없이 54곡의 노래로만 이뤄진 '노트르담'의 압권은 역시 음악이다. '대성당의 시대'를 비롯해, 44주간 프랑스 음반 차트 1위를 차지한 '아름답다', '춤추라 에스메랄다'는 두 곡 두 곡 기억에 남는다.

이번 한국어 버전은 의상과 무대 세트를 프랑스에서 공수, 오리지널 버전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문해원·김법래·윤형렬·서범석 등 배우

들은 철저한 오디션을 통해 선발했다. 공중에 매달리며 아크로바틱, 비보이 댄스까지 보여주는 22명의 댄서 역시 오디션을 통과한 인재들이다. 프랑스어 버전이 아니라는 점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자막을 보면서 감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일 수도 있다. 놓치지 말 것은 마지막 커튼콜. 여타 작품과 달리 사진 촬영도 허용되며 무반주로 부르는 앙코르곡 '대성당의 시대'는 긴 여운을 준다. 문의 062-360-262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故 박경리 선생 유고 시집 출간

6월 중 ... 미발표 시 36편 등 총 39편 수록

지난달 5일 타계한 소설가 고(故) 박경리 선생의 미발표 시 36편이 포함된 유고 시집이 이달 중에 출간된다. 고인의 딸인 김영주 토지문화관장은 2일 "어머니가 생전에 시집

출간을 위해 60편의 시를 준비하시다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미처 못 채우고 돌아가셨다"며 "완성해두신 시들을 골라 이달 22일 49쪽에 맞춰 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관장은 "원래부터 시를 쓰고 싶다고 항상 말씀하셨던 데다 몸이 안 좋아지면서 산문을 쓰기 힘들어지면서서 마지막 주로 시작에만 하겠다"고 전했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출가분하다"는 가제가 붙은 유고 시집은 고인이 생전에 시집을 내기로 했던 마로니에북스에서 나올 예정이며, 고인의 미발표 시 36편과 지난 4월 현대문학에 기고했던 시 3편 등 총 39편이 수록된다. /연협뉴스

도심 속 푸른 풍경

김효중씨 롯데화랑서 사진전



'분당 중앙공원'

사진작가 김효중씨가 5~18일까지 광주롯데화랑에서 '푸른 풍경'을 주제로 두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현대화로 적박하게 변해버린 도시 공간의 단편과 문명화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경기도 일산,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를 소재로 인간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본다. 일산 호수공원, 분당 중앙공원, 양재공원 등 국내 대표적인 도심 속 공원이 카메라 렌즈에 담겼다.

광주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한 김효중씨는 '제2회 환경

미술제' '시선과 응시'전 '들-생명의 땅'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221-180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옥과미술관 '일상의 가장자리' 전시회

전남도립 옥과미술관은 오는 7월 24일까지 박정용, 정운화, 윤익 등 3명의 작가를 초대해 '일상의 가장자리'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이들 작가들은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모습을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박씨는 안과 밖이 드러나는 그물망 형태의 철로 만든 새가 깃을 내려다 보고 있는 조각 작품인 '본질을 기억

하다'를 통해 '몸'과 '기억'의 관계를 되짚어 본다. 윤씨는 거대한 원형 유리 위로 나무처럼 뻗어나가는 구조물을 세워 삶의 공간을 은유화 시킨 '무제'를 선보인다. 정씨는 아크릴로 옷의 형태를 만든 뒤 물감을 덧칠하는 회화와 조각이 결합된 작품인 '침'을 전시한다. 문의 061-363-727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우수 공연 관람 후기 모집



정운화 작 '침'

광주문예회관이 우수 공연 관람 후기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콘서트 등이며 공연 관람 후 회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채택된 사람에게는 회관 기획 공연 및 시립예술단체 우수 공연 관람권(1인 4매)과 '빛고을 문예' 등 정기 간행물을 증정한다. 문의 062-510-9264.

movies 인기영화 추천은 지금 보십시오 Happy Time 영화안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관동역사거리 ☞에이1544-0600

1관	인디애나 존스 (124)	최고급관
2관	인디애나 존스 (124)	
3관	88분 (154)	
4관	위 오운 더 나잇 (184)	
5관	아이언 맨 (124)	
6관	바디 (154) / 방울토마토 (124)	
7관	나니아연대기 (전제)	
8관	페넬로피 (124) / 갯섬 (124)	
9관	라스베가스에서만생길수있는일 (154)	

영화 학업 이수하면 감독과 배우가 출연한다! (-2008.08.31)
 * 이프유 주자장 이용시 2시간 80분 무료 (다.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9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엔터 시네마

충정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라스베가스에서만생길수있는일 (184)	
2관	호른 (전제) / 추격자 (184)	
3관	포비든킹덤 (124) / 기루지기 (184)	
4관	스피드레이서 (124)	
5관	아이언맨 (124)	
6관	테이큰 (184)	
7관	나니아연대기 (전제)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4~4목의 주차장 300대 * ●관로 심야상영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황포시장 영화사랑 * 예매: www.joybox.com /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의역편의점)

1관	라스베가스에서만생길수있는일 (124)	
2관	위 오운 더 나잇 (184)	
3관	인디애나 존스 (124)	
4관	인디애나 존스 (124)	
5관	방울토마토 (124) / 갯섬 (124)	
6관	명탐정코난 (124) / 아이언맨 (124)	
7관	인디애나 존스 (124)	
8관	88분 (154)	
9관	나니아연대기 (124)	
10관	인디애나 존스 (124)	

* 호날 커피 주자장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 넓은편의점 앞 주차장 300대 * ●관로 심야상영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새롭게 영화선학 * www.chinua.co.kr /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나니아연대기 (전제)	
2관	갯섬 (124) / 아이언맨 (124)	
3관	라스베가스에서만생길수있는일 (154)	
4관	88분 (154)	
5관	페넬로피 (124) / 바디 (154)	
6관	인디애나 존스 (124)	
7관	인디애나 존스 (124)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1544-0070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피닉스카드 사후니 (0284-0284114)

고려시영 고래김동 * www.hamcinema.co.kr / 1588-9120

하미 시네마

진대후문 하이포텍스 ☞ 267-7777

1관	호른 (전제)	
2관	인디애나 존스 (전제)	
3관	갯섬 (124)	
4관	스피드레이서 (124)	
5관	인디애나 존스 (전제)	
6관	테이큰 (184)	
7관	방울토마토 (124)	
8관	라스베가스에서만생길수있는일 (154)	
9관	아이언 맨 (124)	
10관	나니아연대기 (전제)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85 매일 심야 * 이동통신사 & OK 캐시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88-5757 * 하미 불꽃장 282-08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열민관 예약 261-2000

새로운 기쁨 * www.primacinema.com / www.jekinema.co.kr

제일 시네마

충정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인디애나 존스 (전제)	
2관	인디애나 존스 (전제)	
3관	아이언 맨 (124)	
4관	라스베가스에서만생길수있는일 (154)	
5관	갯섬 (124)	
6관	나니아연대기 (전제)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서 앞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 ARS 전화예매 227-1960

